

[로스쿨 소식]

## 2017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 시행결과

### I. 개요

1.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는 2017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 LEET)을 2016년 8월 23일(일)에 서울, 수원,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춘천, 제주 등 9개 지구 15개교에서 실시하였다.

- (1) 응시자는 전체 지원인원 8,838명 중 91.76%인 8,110명이 응시하였으며, 지구별로는 서울 6,040명, 수원 398명, 부산 506명, 대구 344명, 광주 259명, 전주 174명, 대전 318명, 춘천 40명, 제주 31명이다. 결시자는 응시료 환불자 393명을 포함하여 728이다. 수험생 중 시각장애인(약시)과 지체장애인이 포함된 특별관리대상자는 29명이었으며, 별도로 제작된 확대 문제지와 논술답안 작성을 위한 컴퓨터 등이 제공되었다.
- (2) 문제지와 정답은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 ([www.leet.or.kr](http://www.leet.or.kr))에 탑재하였으며, 정답 이의신청 일정과 출제 기본방향 및 영역별 출제방향 등은 다음과 같다.

2. 참고로 협의회에서는 “2017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공동 입학설명회”를 2016년 9월 23일(금)~24일(토), ‘한양대학교 올림픽체육관(서울 성동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II. 일반 개황

#### 1. 시험 시간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시험은 1교시 언어이해 영역 (09:00~10:20), 2교시 추리논증 영역 (11:00~12:50), 3교시 논술 영역(14:00~16:00)의 순서로 실시되었다.

#### 2. 문제 및 정답 이의 신청 및 심사

문제 및 정답 이의 신청 관련 일정은 다음과 같다.

- 이의 신청 접수 : 2016. 8. 28(일) 17시 ~ 2016. 8. 31(수) 17시
- 응시생에 한하여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가능
- 이의 처리 기간 : 2016. 8. 29(월) ~ 2016. 9. 7(수)
- 최종 정답 발표 : 2016. 9. 8(목)

### 3. 채점 및 성적 통지

언어이해 영역과 추리논증 영역의 성적은 9월 20일(화)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www.leet.or.kr)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성적표에는 영역별 표준점수와 표준점수에 해당하는 백분위가 표기된다. 논술 영역의 경우 추후 수험생이 지원하는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채점한다.

## Ⅲ. 출제의 기본방향

- 법학적성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수학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대학 교양 과목 수준의 보편적인 개념과 소재를 활용하여 출제하도록 한다.
- 가능한 한 다양한 학문 영역에 관련된 소재를 활용하여 통합적으로 출제하도록 한다.
- 기억력에 의존하는 평가를 지양하고 분석력, 추리력, 종합적 비판력, 창의적 적용 능력 같은 고차원적 사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하도록 한다.
- 특정한 전공 영역에 유리한 문항을 배제하여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Ⅳ. 영역별 출제 방향

### □ 1교시 : 언어이해 영역

#### 1. 출제의 기본 방향

언어이해 영역은 미래의 법률가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언어 소양과 법학전문대학원 수학에 필요한 통합적 언어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원활하게 수학하려면 학부에서의 전공과 상관없이 공적 가치 판단이 요구되는 전문적인 글들을 독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텍스트를 능동적으로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대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을 출제의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구체적인 출제 원칙은 다음과 같다.

- 통합적이며 심층적인 독해 및 사고 능력을 평가한다.
- 인문, 사회, 과학기술, 규범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내용 및 표현 면에서 모범이 될 수 있는 제시문을 선정·개발한다.
- 제시문의 핵심 정보나 주요 세부 정보들을 파악하고, 정보들 간의 유기적 관련성을 분석·종합하며, 주어진 단서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제 상황들에 대응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한다.

- 기본 독해 능력에 대해서는 동일한 유형의 문항을 활용하되, 제시문을 통해 획득한 단서를 바탕으로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여 판단할 수 있게 하는 비판적, 창의적 문제를 개발한다.

## 2. 출제 범위

언어이해 영역은 독해를 기반으로 한 언어 이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영역이다. 이 능력은 다양한 주제를 다룬 폭넓은 유형의 글들을 정확히 읽어 내는 능력과, 그 글들을 바탕으로 적절한 추론과 비판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이러한 능력을 점검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제시문의 소재를 구하되, 중요한 공적 가치를 지닌 주제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고, 언어이해 영역의 여러 평가 목표를 균형 있게 다룰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시험에서 제시문을 선정할 때 고려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교양 교육의 충실한 이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여러 학문분야에 두루 사용되는 기본적인 개념이나 범주들을 중심으로 하되, 각 학문 분야의 최신 이론이나 시의성 있는 문제 상황을 반영하는 주제로 제시문을 작성하였다.

둘째, 문항 세트 설계를 원리적 모델들을 기반으로 제시문에 사용된 개념이나 범주들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평가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법학의 배경지식을 요구하는 제시문 대신 학제적 내용 분야와 각 주제들을 연계함으로써 통합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할 수 있게 하였다.

넷째, 다양한 내용 분야들이 법적 문제들과 연관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제시문을 선정함으로써 법의 이론적·현실적 연관성을 폭넓게 사고하게 하였다.

다섯째, 최근의 시사와 학문적 동향을 반영하여 제시문 독해만으로도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하였다.

## 3. 제시문 및 문항

이번 출제에서는 기왕의 출제 경향이 난삽하거나 현학적인 제시문을 출제하는 차원에 머물렀던 것을 지양하여, 가독성이 뛰어나고 취지가 분명한 제시문을 바탕으로 독해와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 시험이 지식이 아니라 능력을 측정하는 데 주요한 목표가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방향이야말로 독해 능력을 제대로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시험에서는 ‘인문’, ‘사회’, ‘과학기술’, ‘규범’으로 분류된 4개내용 영역에서 문학, 사학, 철학, 경제, 정치, 윤리, 법철학, 물리, 생물등의 분야에서 11개 문항세트(총 35문항)를 출제하였다. 각각의 문항세트는 대의 파악, 정보 재구성, 관점과 의도 파악, 추론, 비판과 적용 등 독해와 관련된 5개 영역을 전제로 제시문 특성에 따라 구성하였다.

각 분야별로 제시문 선택 및 문항 구성의 주안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인문’ 분야에서 우선 문학은 이청준 소설을 제시문으로 선택하였다. 이청준 소설을 택한

것은 이 소설이 현대사회의 모순이 개인의 내면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며, 법률가로서 필요한 섬세하고 구체적인 상황 판단 및 인간 심리 이해를 측정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사학은 조선 시대에 재가 관련 규정이 성립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사료를 재구성하여 제시문으로 삼았다. 이 제시문은 논쟁점을 둘러싼 구체적 사실들과 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선택하였다.

그리고 철학에서는 감각과 인지 과정에 대한 두 이론을 비교하는 내용을 제시문으로 구성하였다. 감각과 인지 과정을 대하는 대비적인 이론은 상반되는 입장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지 측정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제시문을 바탕으로, 상반되는 입장 근거에 존재하는 공통된 전제의 파악, 상호 쟁점에 대한 구체적 이해, 다른 사례에 대한 적용을 점검하게 하였다.

'사회' 분야에서 우선 경제는 금융위기를 설명하는 네 가지 이론적 입장을 바탕으로 제시문을 구성하였다. 현대 자본주의의 중요한 문제를 다룬 이 글이 논제를 다루는 각 입장들의 상이한 이론적 출발점을 비교·이해하는 능력과, 이를 바탕으로 실제 사례를 비판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점검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정치에서는 후기 현대사회로의 전환을 알려주는 현상으로 '새로운 전쟁'을 다룬 글을 제시문으로 삼았다. 새로운 전쟁의 양상을 바탕으로 유럽에서 발원한 근대의 국민국가 체제가 균열됨을 보여주는 이 글이 세계사적 변화와 인류 사회의 목표라는 대의를 읽어낼 수 있는지 점검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규범' 분야에서 우선 '카르네아데스의 널'을 재구성한 사례를 바탕으로 범죄 여부를 논한 글을 제시하였다.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을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을 중심으로 논하는 이 글이 세밀한 논리적 연관관계 및 사례에 대한 적용과 추론, 주요 개념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측정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법학의 사전 지식과 무관하게 문항을 구성함으로써 독해와 사고 능력을 제대로 측정하게 하는 것을 이 문항 세트 설계의 중점으로 삼았다. 두 번째 제시문은 개인의 복지 수준을 파악하는 여러 이론을 제시하고, 각 이론의 세부내용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각 이론에서 복지를 설명하는 방식의 차이를 다룬 이 글이 복지의 구성 요소에 대한 이론적 차이와 각 이론에 대한 비판적 추론을 문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공화주의와 헌법 간의 관계를 다룬 글을 제시하였다. 공화주의와 헌법이 현대 민주주의 구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이 글이 역사적이고도 개념적 진술 속에 나타난 기본 입장을 파악하고 나아가 현대 민주주의가 나아갈 방향을 추론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형사 절차에서의 변호인의 역할을 다룬 글을 제시문으로 삼았다. 변호인의 성실 의무를 쟁점으로 한 이 글은 미국에서 이루어진 각 판례의 주요 근거 파악, 판례들의 전체적인 흐름 파악,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공통점 추론 등을 측정하는 데 적합하다고 보았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물리는 성운과 지구 간의 거리 측정을 다룬 글을 제시하였다. 변광성을 중심으로 성운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을 과학사적으로 다룬 이 글이 우주의 크기, 성운에 대한 천문학적 사실, 성운을 설명하는 두 가설 등을 중심으로 객관적 사실 파악, 과학 이론의 전체 파악, 세부적 사실의 추론 등을 측정하는 데 적합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생물에서는 창자의 상피세포와 성체장줄기세포의 분화과정을 다룬 글을 제시문으로 구성하였다. 분화과정을 이루는 세부적인 과정과 결과를 다룬 이 글이 과학적 사실의 파악, 생리학 과정의 정보 추출, 과학적 이론의 세부적인 추론 등을 점검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 4. 난이도

2017학년도 법학적성시험에서는, 적절한 난이도를 유지했다고 판단되는 2016학년도 난이도와 같은 수준으로 난이도를 조정하고자 했다.

그러나 예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출제 방향에 있어 중요한 준거로 난잡한 제시문을 통해서가 아니라 독해 능력을 실질적으로 측정하는 문항을 통해서 난이도를 조정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그 때문에 출제진은 제시문의 가독성을 예년보다 훨씬 높여서 제시문의 난잡한 때문에 실질적인 독해 능력 측정에 방해받는 경우를 없애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가독성이 높은 제시문으로 인해 정답률이 다소 높아질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해능력 측정이라는 언어이해 영역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는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물론 제시문의 가독성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제시문이 다루는 내용은 심도가 있게 함으로써 국내의 시험 가운데 가장 수준이 높은 법학적성시험에 걸맞게 하였다. 한편, 개별 문항의 난이도를 확보함에 있어서도 제시문의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기울였다. 제시문의 가독성이 높기에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예년보다 쉬워질 수 있지만, 실질적인 난이도는 거의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본다. 또 하나 강조할 것은, 제시문의 내용이 기출 문제나 사실 문제집과 부분적으로 겹치는 경우에 대해서이다. 이번 시험에서는 제시문의 제재를 새로운 관점에서 재구성하여 표면적인 유사성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유사하지 않게 하고, 나아가 문항 구성도 기출 문제를 푼 사전 경험이나 지식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게 하였다. 그리하여 설사 부분적으로 겹치는 내용을 미리 학습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번 시험을 보는 데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없게끔 출제하였다. 그리고 특정 전공에게 유리한 경우가 없게 하는 것에도 이번 출제진은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

#### 5. 문항 출제 시의 유의점 및 강조점

- 언어이해 영역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능력이 주로 통합적 이해력과 심층 분석력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시문 분량과 제시문 당 문항수에 융통성을 두었다.
- 제시문의 내용과 문항 구성에 있어서 기존 문제나 사실문제집을 푼 경험에 의존해서는 풀리지 않도록 하였으며, 특정 전공에 따른 유불리도 나타나지 않도록 하였다.

- 출제의 의도를 감추거나 오해하게 하는 질문의 선택을 피하고, 평가하고자 하는 능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간명한 형식을 취하였다.
- 문항 및 선택지 간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선택지 선택에서 능력에 따른 변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 2교시 : 추리논증 영역

### 1. 출제의 기본 방향

추리논증 시험은 대학에서 정상적인 학업과 독서 생활을 통하여 사고력을 함양한 사람이면 누구나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루되, 주어진 제시문의 내용에 관한 선지식이 문제 풀이에 도움이 되지 않도록 하였다. 그리고 제시문에서 주어진 내용을 단순히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제시된 글이나 상황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해결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하여 사고력, 즉 추리력과 비판력을 측정하는 시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추리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은 수리추리 문제보다는 일상언어 추리능력이 법학적성시험의 취지에 맞다는 판단에 따라 다양한 소재의 일상 언어 추리 문항을 늘리고, 비판능력을 측정하는 문항도 주어진 정보를 평가하고 그 정보를 토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을 늘리기로 하였다.

전 학문 분야 및 일상적, 실천적 영역에 걸쳐 다양하게 문항의 제재를 선택함으로써 대학에서 특정 전공자가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영역 간 균형 잡힌 제재 선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제시문으로 선택된 영역의 전문 지식이 문항 해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주력하였다. 시험의 성격 상 규범 영역의 제시문을 다소 많이 포함시켰으나, 제시문 및 질문을 최대한 순화하여 일상적 언어능력과 사고력만으로 제시문을 읽어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 출제 범위 및 문항 구성

추리논증 시험은 인문, 사회, 자연, 규범 영역의 다양한 학문적인 소재뿐만 아니라 사실이나 견해, 정책이나 실천적 의사결정 등을 다루는 일상적 소재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시험에서도 소재 구성은 큰 차이가 없었다. 규범 제재를 다루는 문항들(1번~11번)과 인문 제재를 다루는 문항들(12번~19번), 사회과학 제재를 다루는 문항들(23~29번), 자연과학과 융복합적 제재를 다루는 문항들(30번~35), 그리고 일상적 논증과 논리·수리적 추리를 다루는 문항들(20번~22번)로 구성되어 다양한 성격의 글들을 골고루 포함하였다.

올해 추리논증 시험은 추리문항을 40% 정도, 비판문항을 60% 정도로 출제하였고, 특히 법학적성시험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수험능력과의 상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리논증 시험에서 논증 분석 및 평가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추리논증 시험에서는 추리문항에서는 수리추리 문항을 배제하고 일상 언어 추리문항의 수를 늘렸고, 비

판문항은 문제해결능력을 묻는 문항의 비중을 높였다.

### 3. 난이도

문항의 글자 수를 줄여서 독해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였고, 제시문을 가능한 순화하여 비전공자들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난이도를 적절하게 조정하였다. 특히 지금까지 자주 출제되었던 복잡한 수리추리 문항이나 논리게임의 문항도 2문항으로 난도를 낮춤으로써 많은 수험생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형추리 문항도 사회경제학적 상황에서 추리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여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추론하는 문항이 아니어서 수험생들이 풀이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감 난도와 실제 난도를 낮추도록 하였다.

논증이나 논쟁적 자료를 분석하고 비판하도록 요구하는 문항들의 난도도 너무 높지 않도록 하였다.

### 4. 출제 시 유의점

- 제시문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시문의 독해부담을 줄이도록 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법학적성시험이 측정하고자 하는 추리능력과 비판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 복잡한 수리추리 문제를 출제하지 않기로 하고, 그럼에도 주어진 정보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이끌어내는 능력인 추리능력의 측정이 법학적성시험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가능한 다양한 학문 영역을 제재로 한 언어추리 문제를 확대하였다.
- 선지식에 의해 풀게 되거나 전공에 따른 유불리가 분명해지는 제시문의 선택과 문항의 출제를 지양하였다.
- 출제의 의도를 감추거나 오해하게 하는 질문을 피하고, 평가하고자 하는 능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간명한 형식을 취하였다.
- 문항 및 선택지 간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선택지 선택에서 능력에 따른 변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 3교시 : 논술 영역

##### 1. 출제의 기본 방향

논술 영역에서는 미래의 법률가가 갖추어야 할 분석적, 비판적, 종합적 사고력과 논리적이면서도 창의적인 글쓰기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법률가에게는 합리적 판단을 위한 법적 추론의 능력과 그것을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논술 문항은 이런 능력들을 검증하기 위해 인문·사회 분야의 텍스트를 제시문으로 선정하여 해석 능력을 점검하고, 그 해석을 바탕으로 제한된 시간과 분량 내에서 자신의 생각을 글로 작성하는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다.

## 2. 출제 범위

법학적성 평가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논제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인문·사회 분야 제시문을 선정하되,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도록 하였다. 법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지망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 규범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시켰지만 법학 지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글을 읽고 이를 바탕으로 사고하는 인문학적 소양과 상식을 갖춘 학생이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다.

## 3. 문항

2017학년도 법학적성시험 논술 영역은 두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번 문항은 <보기>에서 가상현실을 구현하는 상호작용적 매체에 대한 규제를 쟁점으로 제기한 다음, <규칙>에서 규제의 요건을 밝히고 있는 두 개의 규칙을 주었으며, <자료>에서 규칙을 적용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주었다. 수험생은 두 규칙을 적용할 때 이 규제에 대하여 찬반 중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판단하여야 하며, 이때 적합한 자료를 3~4개 활용하여 판단 근거로 제시해야 한다. 적절한 자료를 기초로 규칙을 적용하는 능력과 일관된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비판하는 능력이 중요한 평가지표가 될 것이다

2번 문항은 우선 <사례>에서 계층 분화 현상, 분배 관행의 문제, 정치적 평등과 심의민주주의의 문제 등을 함축하고 있는 가상 사례를 구성하여 주고, 가장 중요한 문제점을 선택하여 왜 가장 중요한지 설명하게 하였다. 이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게 한 다음, <제시문>의 한 입장을 중심으로 이 방안의 타당성을 논증하게 하였다. 수험생은 문제점들을 비교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점을 선택한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문 검토를 바탕으로 자신이 제시한 해결책이 왜 타당한지 근거를 들어야 한다. 쟁점파악, 대안제시 및 대안에 대한 근거제시와 관련된 종합적 사고능력이 중요한 평가지표가 될 것이다.

## 4. 난이도

2017학년도 법학적성시험에서는 2016학년도와 비슷하게 유지하였다. 법학에 대한 선지식이 답안 작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응시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변별력을 가지도록 문항을 구성하였다.

## 5. 문항 출제 시의 유의점 및 강조점

- 문제 유형과 답안 분량을 고려하여 1, 2번 문항의 배점을 각각 40점, 60점으로 차등 배분하였다.
- 해석상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질문과 조건을 명확하게 표현하였다.
- 제시문은 출제 의도를 좀 더 잘 구현하고 가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원 자료를 적절히 재구성하고 운문하였다.